

편찮으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1. 스웨덴 김명자 선교사- 췌장암이 다시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몸속의 모든 암세포가 완전히 없어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 네팔 이예신 선교사- 선교사님께서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Diffuse Large B Cell Lymphoma)이라는 병이라고 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3. 첼라빈스크 김봉년 선교사- 계속해서 호르몬 치료 결과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암세포가 완전히 제거되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4. 터키 양창모 선교사- 파킨슨병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5. 터키 최지섭 이해영 선교사- 이해영 선교사님은 척추골 부분 통증이 심하여 MRI 검사 결과 줄어든 암으로 인해 뼈부분이 연약하여 통증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손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6. 중국 박OO- 심장 스텐스 수술 후 많이 회복되었으며 한번에 수술이 더 남아 있습니다. 완전한회복과 남은 수술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7. 사할린 김성민- 사모님인 김지경 선교사님께서 코로나 후유증으로 혈압이 불안정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8. 러시아 은성식 김경희 선교사-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한 심장과 폐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9. 파나마 김재한 선교사 - 전립선 암 수술 후 회복중입니다. 두달안에완전히회복되어선교지에서사역을 감당하시도록
10. 아르헨티나 유성두 선교사님 사모님 강지애 선교사님이 유방암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국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11. 과테말라 최용준선교사님이 Covid-19 확진되었습니다. 주님의 치유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12. 인도 이○○ 선교사 - 척추관협착증으로 인한 허리와 다리의 통증과 위장 장애를 치유해 주시길 기도해 주세요.

선교사님들의 기도제목

북미주 김득원 선교사

<기도제목>

1. Mexico Casa De Dios 교회가 계속 성장 하도록
2. 태국 TD 회관 건축이 잘 건축 되도록
3. 복음 팔찌 사역이 잘 이루어 지도록
4. 계속 백시교 선교 물품을 원활히 보낼 수 있도록
5. 아이티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하여
6. 멕시코 엔세나다 캠프사역과 테카테 신학교 사역이 잘 운영되도록
7.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도 허리, 발 통증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멕시코 임한곤 선교사

<기도제목>

- 1)치안안전과 각종 전염병(당귀열, 수인성, 고산병, 코로나바이러스 등)으로부터 안전하도록
- 2)멕시코 교회들의 사역을 통해서 말씀이 충만히 심어지고,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자력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들이 되도록
- 3)신학교사역을 통해서 교회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을 충분히 양성해 내도록
- 4)동역하는 호텔로, 에르구인, 호르헤, 로디스, 삐드로, 미겔 목사님 등이 성령과 말씀으로 늘 충만하도록
- 5)다가오는 2023년에는 “산타페 교회”지역에 신학교 분교를 시작을 앞두고,시청에 인가 신청과 도서구입 등의 준비사역이 잘 진행되도록

기도제목 응답

케냐 강완식

\* 기도응답소식:

고아원에 우물파는일이 증보해 주셔서 드디어~ 8월28일 폭포수 같은 생명샘이 터져나왔습니다. 증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은혜한인교회 선교 소식

2021년 9월 26일 선교사 현황 53개국 321명 자체파송 74%

## 케냐 이야기

할렐루야! 광복절을 맞으며 우리를 모든 억압과 어둠에서부터 해방시켜주시고 자유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킬리피는 일년 중 몇 달 되지 않는 시원한 계절입니다. 한 번씩 밤에 폭우가 쏟아지면 뒤따라 전기가 나가 밤새 들어오지 않기도 하지만 덥지 않아 지내기 좋습니다. 현지 아이들은 추워서 감기에 많이 걸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매일 천명 이상 많을 때는 2천명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과 확진자 수가 비슷한 것 같은데 케냐는 사망률이 높습니다. 백신접종은 3월부터 시작되었고, 이곳 킬리피에는 최근에 약이 왔지만 한군데 병원에서만 접종을 하고, 예약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침부터 하루 종일 줄 서서 기다려도 맞지 못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희 교사들 접종을 위해 알아보니 그마저도 며칠 진행하다가 지금은 약이 없어 중단된 상태입니다. 밖에는 여전히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지만 그래도 관공서나 마켓, 가게들 같이 실내에서는 마스크 쓰는 것이 어느 정도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는 8월부터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3학년 아이들이 한 학년 진급하여 이제 초등학교 4학년까지 생겼습니다. Baby class 부터 4학년까지 190명의 아이들이 매일 열심히, 즐겁게 배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마스크를 걸치고 있다가 저만 보면 서로 알려 주며 고쳐 쓰기 바쁘지요. 지난 7일에는 유치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거리유지 때문에 토요일 오전에 졸업생 아이들과 학부모들만 참석하여 진행하고, 점심은 도시락으로 싸서 가져가도록 주었습니다. 또한 4학년부터는 고학년이라 과목이 많아지는데(11과목) 교과서를 구입할 형편이 되는 학생이 없습니다. 지금 새학기가 시작된 지 3주차가 되는데 학생 한 명이 책 몇 권을 구입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고민한 끝에 학교에서 4학년 14명 모든 아이들의 교과서를 구입하여 학교에서 빌려주는 도서관 방식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4학년 먼저 시작하면서 저학년들도 두 사람당 한 권이라도 볼 수 있도록 학교에서 교과서를 구입하는 것을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가 4년이 되었는데 이제 정말로 스쿨버스가 필요한 시점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스쿨버스는 저희뿐 아니라 학부모들의 오랜 바람이자 기도제목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스쿨버스를 위해서, 그리고 교과서 구입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6월에 저희가 있는 킬리피에 한 군데 예배당이 건축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일에 건축헌금을 보내주시고, 몇 년 동안 교회 건축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진 것입니다. 이 교회 사역자는 저희 컴파운드에 매일 출퇴근하며 함께 일하는 스텝이고, 사모는 저희 학교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다 일하고 월급 받으며, 8명 자녀 중 일곱째, 여덟째가 저희 학교에서 공부하고, 이번에 예배당까지 건축하게 되어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모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저희는 하나님 은혜가운데 7월 한달 미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큰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부족한 저희 선교사들을 너무 사랑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저희는 케냐로 돌아와 시차적응도 하기 전에 새학기가 시작되어 바쁘게 지내다 보니 미국에서의 7월이 꿈만 같습니다. 사역에 지칠 때쯤 그 시간을 꺼내어 보면 다시금 힘이 나고 용기가 솟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고 박원근 선교사님과 함께 했던 지난 9년의 사역들을 계속해서 이어 나가며, GMI Africa 와 케냐 전 지역에 있는 70여개 GMI 교회들, 목회자들, 신학교와 유치원, 초등학교, 그리고 계속 건축되는 교회들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 드릴 많은 열매를 맺는 사역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 케냐 킬리피에서 황광식, 원지혜, 주원, 주이, 주엘 선교사 올림



<기도제목>

1. 성령충만하고 겸손한 선교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이 되게 하소서.
2. 신학교가 가장 적당한 때에 다시 시작되게 하소서.
3. 학교 사역을 위해서- 교사들에게 사명감과 지혜를 주시도록, 아이들 교과서 구입을 위하여, 스쿨버스를 주시도록.
4. 교회 건축이 계속 되게 하소서. 케냐 100교회 건축을 위해.
5. 선교사 가정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 광고

Amazon을 통해 GMI 선교사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Amazon account 가 있으신 분들은 smile.amazon.com 으로 로그인 하신 후, "Grace Korea Church (Fullerton)"를 찾아 설정하시면, 구입하는 금액의 0.5%가 선교후원금으로 적립되게 됩니다. smile.amazon.com/ch/95-3861464.



대한예수교 장로회 국제총회  
은혜한인교회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1-714-446-6200  
gkcgmiusa@gmail.com  
www.gmimission.org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 히브리서 11장 6절 >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한인교회와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과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태국에서 임진섭, 양윤희(하엘) 인사드립니다. 전 세계로 퍼져가는 코로나의 재 확산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더운 여름과 함께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속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넘쳐나시길 기도합니다.

<태국 상황>

태국이 몇 달 전부터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확산되었는데 현재 매일 2만 명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태국의 약 30개의 쟁앗(도)이 락다운 된 상태입니다. 학교나 학원 등이 폐쇄되거나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된지 오래되었고, 마트나 백화점에서는 식료품과 필수 생필품 외에는 구매를 할 수 없습니다.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통금도 있습니다. 교회도 온라인 예배로 전환 된지 오래되었습니다. 복음화가 1% 미만의 국가인 태국이 이 위기를 통해 진정한 왕 되신 예수그리스도께 나오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역 이야기>

1. 교회 사역

저희가 사역하는 한인교회 주일학교 사역이 코로나로 인하여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성인예배만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주일학교 예배가 다시 회복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일에 선배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는 현지교회로 협력사역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일단 백신을 접종 후 본격적인 사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태국 현지 교회에서 태국인 성도들과의 예배와 성경공부 등을 통해 언어의 진보와 사역의 확장을 소망해봅니다.

2. 비대면 시대의 NEW 사역

- 1) GMI zoom 미팅 - GMI 본부와 GMI 태국 선교사들이 매달 사역계획 및 토론과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 2) Zoom 아웃리치 - 시공간을 초월해서 줌을 통해 선교사와 한국에 있는 성도들 간의 예배와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타향에서 선교사로 있는 저희에게는 격려와 사랑을 받는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 3) Zoom 예배 - 백석교단의 몇 명의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연합하여 금요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 예배인과 설교를 맡고 있습니다.
- 4) Zoom 결혼세미나 - 저희부부는 ‘그리스도인의 결혼’ 세미나를 참여하여 부부의 관계를 견고하게 다지고 있습니다.
- 5) Zoom 일대일사역 - 양윤희 선교사는 태국의 지인 선교사님의 부탁으로 일대일로 성경공부를 통해 양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 6) Zoom 언어사역 - 학원의 폐쇄되어 zoom으로 언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정 이야기>

1. 가정의 현 상황

저희 가정은 펜데믹 상황으로 학원이나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확진자의 수가 많아서 식료품을 구매하려 갈 때 외에는 외출도 가능 하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의 방침으로 모든 학교와 유치원들이 폐쇄되어 하엘이는 현재 5개월째 집에만 있는 상황입니다. 펜데믹으로 1년 반을 현지학교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태국어와 영어로 수업합니다. 게다가 학년에 한국인이 하엘이 한 명뿐이어서 과연 버틸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저희 또한 태국어가 완벽하지 못하기에 학교측과의 소통이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만 진행되는 선교사 자녀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로 옮겨야할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2. 한국 방문

지난해 한국에 갔을 때 태국정부에서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여 오랜 기간 태국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하반기에 갑자기 STV(특별관광)비자가 생겨서 2020년 12월에 태국에 입국 했습니다. 해외에서 외국인이 거주하려면 반드시 비자가 있어야하는데 이 비자가 올해 9월 초에 만료됩니다. 비자발급을 위해 한국에 다녀와야 합니다. 2주 자가격리, 비자발급, 백신접종을 진행하려면 약 2달 정도 한국에서 머물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만들 비자는 발렌티어(자원봉사) 비자로서, 제가 먼저 비자를 받고 아내와 아이는 동반자비자로 만들 예정입니다. 하지만, 펜데믹으로 인해 동반자비자발급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저의 비자와 가족의 동반자비자가 잘 발급되어서 저희 가족이 함께 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제목>

1. 코로나가 심한 이때에 태국인들이 우상과 왕을 숭배하는 것에서 벗어나 진정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도록.
2. 가족 모두 말씀과 기도로 깨어 성령 충만함과 육체의 강건함을 위해.
3. 한국 방문하는데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있도록.
  - 비자발급, 백신접종 등.
  - 아내와 아들도 비자를 받아 태국에 무사히 입국할 수 있도록.
4.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적합한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워크퍼밋이 만료되어 차량구매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자발급 후 워크퍼밋을 만들어 차량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5. 아들의 학교를 옮기는 문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임진섭, 양윤희(하엘) 선교사

<1분단상96> 환란과 형통이라는 의미

형통이라고 하면 순탄한 가운데 모든 것이 잘 풀려 나가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성경에는 또 다른 의미의 형통이 있다.

요셉의 경우이다(창39장). 형제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 간 그를 형통한 자라고 하였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응하지 않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도 그는 범사에 형통하였다고 하였다(창39:23).

연속적으로 감당키 힘든 역경에 있었던 그에게 별안간 모든 것이 바뀌어져 해결된 것도 아니고 순조롭게 된 것도 없는데 범사에 형통하다고 한 것이었다.

여기서 주목할 두 가지 점이 있다. 하나는 감당키 힘든 역경인데도 그것이 왜 형통하다고 한 것인가 또 하나는 어떻게 형통한 것인가이다.

이는 어떠한 역경을 겪고 있을지라도 노예가 된 요셉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앞에 죄를 범하지 않았으며, 성실하게 대처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까닭이다. 이를 형통이라 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에게 그 역경을 제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이겨 나가게 하셨고, 주위사람들이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기에 그들에 의해 요셉이 처한 환경이 바뀌어지게 됨을 범사에 형통이라고 했다. 이것이 성경에서의 형통의 의미이다.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관건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한 역경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환경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말이다. 흔히 말하는 태평속의 형통과는 전혀 다르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헬라제국의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 그리고 로마제국의 네로 황제와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적그리스도로 기독교 탄압자로 유명했다. 그 시대 때의 기독교인들이 당한 환난은 이루 말할 수 없음을 기독교사를 통하여 알 수가 있다. 그 때에도 극한 환경속에서 배교치 않고 신앙을 지킨 성도들은 그 환난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그 환난을 이겨내는 형통이 같이했으므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요즈음 과거에 보지 못한 문제들에 봉착하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는 더 큰 환난이 있게 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환난과 고통은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이는“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행전14:22)는 말씀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는 환난을 제거할 능력이 없다.

성경은 우리가 환난을 이겨내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처하게 되는 환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는 요셉에게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환난속의 형통이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환난속에서도 어떻게 변절치 않고 신앙을 지키게 되었는지 그들과 함께하신 하나님의 손길에서 우리는 답을 얻어야 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아무리 감당키 힘든 환난이라고 해도 낙심치 않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고 의지하고 맡겨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다. 달리 말해 하나님이 함께하시어 도우심으로 역경이나 환난을 뛰어 넘어 이기게 되거나 환경이 변화되는 형통이 함께 한다는 믿음위에 서 있다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므로 우리에게 처해지는 어떤 역경과 환난도 허락된 것이기에 우리가 이를 이겨내어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원하신다는 점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허락되는 형통이 아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만을 붙들고, 말기고, 바라보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욥기 23:10)는 말씀같이 욥처럼 사는 자가 얻는 복이다.

더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16:33)고 우리를 위해 세상을 이기시고 선언한 말씀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떠한 역경이나 환난이 있어도 근심 걱정할 것이 전혀 없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세상을 이기시고, 성령님이 보호해 주셔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신 것을 믿고 요동치 않으면 된다. 견디기 힘든 고통속에 있게 될지라도 인내하며 믿음을 놓쳐서는 아니 된다. 믿음을 놓치면 세상으로 추락케 된다. 고로 주님과 동행, 동거하는 삶으로 저 천성을 바라보며 싸워나갈 때 우리는 정금 같이 되어 주님과 재회하는 형통이 반드시 함께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기도 하다. 우리 모두가 이 형통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한다.

- 김대규 장로

그때는 무슨일이지 알지 못했으며 마치 세상의 종말이 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어제 본 하늘의 광경들은 테러로 인한 큰 산불로 인하여 생긴 구름들이었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처음 보는 광경이지만 24장을 마지막 때를 생각해 하는 순간이었고 긴장감과 두려운 마음이 교차했었습니다.

코로나로 여러 상황이 어렵지만 모든 삶과 가정에 주님 안에서 늘 평안을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 1. o i c에 있는 은수와 은준이가 영육간의 건강과 학업에 은혜 주시며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도록.
- 2. 군복무 중인 은상이(상병)가 건강히 군생활 잘할수 있도록.
- 3. 저와 아내의 건강과 아내의 학업을 위해서.
- 4. 15년된 차량을 주시는 분이 있어서 가져오려고 하는데 차량이 문제없이 필요한 곳들을 다닐 수 있도록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먼저 보내 드린 쇼파르 (양각 나팔)는 회개를 촉구하는 나팔 소리 입니다. 음성의 내용은 (저의 목소리) 새해인사로 좋은 새해 그리고 즐거운 새해 되세요. 모든 일들이 성공적으로 잘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날 되시고 그리고 많고 많은 감사와 사랑을 드립니다. 당신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놀라운 축복을 기원합니다. 의 의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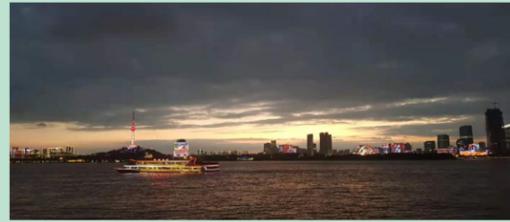
이웃 유대인이 말해준 나팔 소리의 의미는 쇼파르를 부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신비로운 생명책에 우리를 기록하도록 요청하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요소입니다. 나팔 소리의 힘에 대한 신비로운 해석이 많이 있습니다 (주를 믿으면 생명책에 기록되는데 아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아서 말하는 일발적인 견해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신년과 축제와 절기들이 성경과 관련된 나라이며 자신들의 족보가 성경의 족보인 나라 이스라엘에서 신년을 맞이했습니다. 얼마 전부터 한 주에 한번씩 모이는 기도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싱글로 사는 자매가 저녁 식사를 초대했습니다.  
신년 저녁 만찬에 저희 가족과 몇몇 분들 (주로 명절에 홀로 지내는 분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형식에 메이지 않고 진행된 식사모임은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시간도 있었고 찬양과 기도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대화 중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약 15년 전 그녀가 동남아 일대를 다니며 요가와 불교의 명상에 심취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영적 어둠의 세력에 지배를 받고 매우 심한 정신적인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합니다. 지면으로 자세히 나눌 수는 없지만 그의 언니에게 복음을 듣게 되었고 마태복음을 처음 접하면서 주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고백하는 것은 그런 이후에 삶이 완전히 바뀌었고 늘 감사와 밝은 모습으로 웃음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자서 기쁨으로 손님 접대를 (마치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맞이한 듯) 하는 모습에 감동이 아직 까지 저의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너무 감동했던 어제 식사 후 단숨에 쌓여진 그릇을 설거지 하다 깨진 그릇을 씻다가 손가락 등이 상처를 입어 설거지를 아들이 이어서 마무리했습니다. 깨지고 상한 심령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쓰시지만 깨진 그릇은 사용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그릇이 어떤 그릇이든지 잘 관리해서 주인되신 주님께 사용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그릇이 어떤 그릇이든지 잘 관리해서 주인되신 주님께 사용 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로마서 10:14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없이 어찌 들으리요 말씀 하신 것처럼 전하는 자가 있을 때 주님을 만난다는 당연한 진리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 삼 백 오십 개의 크고작은 믿음의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더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를 믿을 수 있도록 전하는 일들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두 손 모아주세요. 휴가 중인 큰 아들의 일정 중에 주께서 함께 하시도록 그를 위해 함께 두 손 모아 주세요.

인도에서 함께 했던 형제 사역자 고로프가 (로산 목사의 친구) 오늘 이른 새벽 주님이 부르셔서 주께 돌아갔습니다. 다시 볼수 없다는 안타까움에 마음이 힘들지만 미련 없이 이세상을 떠나 주님의 품을 갔다고 생각하니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는 한 때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건강이 악화되어 뼈만 남은 앙상한 모습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회복이 되었었습니다(키가 180이 넘는 건강한 체격). 그는 이제 약40 대 초반인데 싱글이었고 상당가였고 에이즈 치료와 관련된 일들로 인도 전역을 다니며 장기간의 여행을 다녔었고 카스트가 높은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보내면서 결코 길지 않은 인생의 유한함과 더불어 역사적 종말보다 개인적인 죽음 즉 우리들의 마지막 시간들이 결코 멀리 있지 않음을 느낍니다. 아직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기에 오늘도 더 전심으로 주께 나아가고 주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 김 서 호 선교사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온 나라가 내수와 수출입 확대를 통해 경제 성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으려 고군분투합니다. 영혼은 날로 피폐해 가는데 분주한 삶에 치여 생명의 주를 찾아 나올 생각을 못하고 신앙은 늘 뒷전입니다. 현재 대면 예배는 금지되었고 비대면 온라인 중계는 돌연 종료 당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기도하며 다시 대책을 찾으면 됩니다. 시련은 많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장고의 세월을 흘러온 저 강강 처럼 은혜의 강수가 이 땅 구석 구석 계속하여 흘러 넘치길 소원합니다.

8월 부터 코로나 19로 인해 소실된 영어예배를 되살리기 위한 대면 영어 성경 모임이 매주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부득이 온라인에서 모임이 진행되고 있지만 공간의 제약이 사라져 더 많은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게되었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어 ON/OFF 양방향의 사업들이 날로 확대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제목>

- 1. 지역 교회에 찬양팀을 세우는 사역이 차질없이 잘 진행되도록.
- 2. 영어 성경 모임을 통해 영어 예배가 다시 준비되고 일어나도록.
- 3. 주께서 저의 연약함과 실수를 가리시고 약함 가운데 승리하도록.

- 중국 조○○ 윤○○선교사

안녕하세요  
이곳 필리핀은 지난 3주간 계속해서 비가 내리다가 현재는 흐리고 가끔 소나기가 내리는 전형적인 우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년 간 평균 확진자 수가 7천명 정도였었는데 최근 15,000명 까지 치솟으며 병원에 병상이 부족하여서 주차장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코비드 델타 바이러스가 유행하며 확진자와 중증환자까지 전체적으로 폭증하는 것 같습니다.항상 조심해서 사역하지만 약간의 두려움은 어쩔 수 없어서 산소 탱크와 관련 장비를 가정에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여타 치료에 관련된 약들도 준비해 놓고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매 주일 뿌락시 빌라마리아 아이따 은혜교회와 마발랏캣시 아프로볼라 은혜교회는 아직 부족하지만 직접 목회를 하며 예배인도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4번째 건축 중인 투콕 은혜교회와 5번째 혈모사 반천교회는 각 80%와 95%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2주간 락다운으로 잠시 건축을 멈추었지만, 미완성된 교회 안에서 현지인 목사들이 예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동에 제약이 따르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렵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역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셔서 제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공급하십니다.  
올해 1월초에 마무리한 앙헬레스 은혜교회 이후에 3개의 교회를 더 건축하게 하셨는데 최근 교회 없이 예배드리는 또 다른 현지인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또 다시 건축의 길을 여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 교회 건축은 이만 해야겠다는 저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보여주시는 데로 순종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제목>

- 1. 건축 중인 투콕 은혜교회와 혈모사 반천교회에 마무리를 위해서
- 2. 직접 목회중인 뿌락아이따 은혜교회와 아프로볼라 은혜교회에 부흥성장
- 3. 가족의 건강과 행복
- 4. 항상 은혜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 김인수 황소정(하연) 선교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약1:27)

코로나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며 순종하는 동역자님께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보호하심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안정을 되찾고 있는 인도]

계속되는 백신접종과 집단면역으로 이곳 푸네는 일일확진자 발생이 수백 명 대로 줄었습니다. 코로나 2차 확산으로 한때는 혼란에 빠졌지만 지금은 집단면역이 70% 정도 되어 코로나 감염률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하여 공공모임(종교, 교육, 행사, 오락 등)을 제외한 많은 부분의 봉쇄도 완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안정을 찾고 거리를 활보하며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은 환율도 회복되고 있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산층이었는데 슬럼지역으로 이사를 간 성도님도 있고, 일거리가 없다 보니 집에 먹을 것이 없는 성도님 가정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향한 새로운 뜻이 있는 줄 믿고 모든 것이 합력 하여 선을 이루기를 기도합니다.

[식료품 - 하나님의 마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많은 인도 인들이 어려워하고 있다는 감동을 주셔서 식료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가지고 있는 구제비도 없었는데, 마침 알지도 못한 분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게 되어 쌀과 밀, 콩, 식용유, 전도지 등을 준비하여 현지목회자, 성도, 빈민 대상으로 180가정에 식료품 꾸러미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의 확산으로 교회에서 30분 간격으로 나누어 주기도 했고, 밀집지역은 현지 교회 청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골목골목 다니며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은 리샤(3륜 자동차)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을 찾아와 준 우리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었고, 코로나 재확 산으로 인해 정말 힘든 가운데 식료품을 받은 분들이 많이 기뻐하고 감격해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위험하고 구제비도 없고, 여러 가지로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주님을 의지케 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힘을 주셔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하 셧습니다! 고향에 갔다가 오래만에 돌아온 뽀뜨라지(인도 무속인)마을 부족민들에게도 식료 품을 전달했는데,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보살피십니다. 굶주리고 헐벗은 자를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환난 중에서도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히즈라 탐만나가 예수님을 영접하다]

도시락을 나누는 가운데 히즈라(양성소유자)인 ‘탐만나’가 하루는 우리에게 와서 하소연을 하였 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심하게 때려 너무 아프고 괴 롭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가 남편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외모는 거의 남자이고 히즈라는 거의 혼자 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마음이 많이 아 찼고 그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탐만나’가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영접기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따라하게 시키는데 자꾸 알아 듣지 못하고 몇 번이나 이상한 소리만 나오는 것을 보며 마귀가 탐만나의 입술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탐만나는 눈물로 회개하며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셨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놀랍고 은혜롭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대도 못했는 데 하나님께서 탐만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영 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탐만나는 남편?을 용서했는지 남편을 보여주고 싶다고 우리를 끌고 갔습니다. 또한 그 자리에서 헌금을 드리고 싶다며 작은 동전지갑에서 10루피(약 160원)짜 리 동전을 꺼내어 주었고, 과부의 두 램돈과도 같은 그 헌금을 보며 저희들은 감사기도와 탐만나를 위한 축복의 기도를 올려 드렸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 보다 더하다고 했는데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매주 도시락을 나누고 상처를 치료해 주었던니 한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감격의 순간을 직접 보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탐만나 성도님(!)이 주님의 자녀로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인교회에서 마스크를]

사실 그동안 저렴한 마스크를 나눌 때 마음이 늘 쓰였는데 이번에는 질이 좋고, 빨아 쓸 수도 있는 고급(?) 천 마스크를 나누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인교회 목사님으로부터 마스크 400장 을 기부 받고 노숙자와 어려운 이들에게 나눠 주었 습니다. 마스크가 없는 사람들, 있어도 몇 주, 몇 달째 사용하여 헤어지고 더러운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들, 또 어린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러나 아이들에게는 마스크가 많이 컷습니다. 미리 아이들을 배려하지 못했던 것이 미안했습니다. 또 마스크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분이 있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바이러스 를 막는 마스크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죄를 막는 믿음의 마스크도 주셔서 죄의 고통 으로부터 강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노숙자에게 주님의 이름이]

요즘은 문순 기간이라 날씨가 쌀쌀해져서 도시락 뿐만 아니라 따뜻한 짜이(인도 전통차) 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적은 양이지만 이들이 주님의 따뜻함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바라보며 “Praise the Lord”(찬양하십시오! 주님을!)를 말하면서 짜 이를 건네 줍니다.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듣기를 원하고 주님의 이름이 그들의 마음속에 새 겨지기를 원해서입니다. 가끔 저희보다 먼저 “Praise the Lord”를 말하고는 짜이를 받아 가는 분들도 있어서 서로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그동안 매주 도시락을 전해주고 상처를 치료해 주었던 한 노숙자가 코로나로 사망하여 이 제는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노숙자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주님 품 안에서 영원히 살 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영원히 살지 못할 것입니다. 육신이 살기 위해서 도시락과 짜이가 필 요합니다. 그러나 영혼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몸 속에 ‘도 시락과 짜이’만 남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영혼에 예수님의‘살과 피’가 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최근에 이 사역에 대해 전해 들은 어느 현지인이 감동을 받아 적으나마 후원을 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직접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현지인들의 동참 에 저희들도 은혜와 새 힘을 얻었습니다. 또 사역 중에 어떤 사람이 우리 팀의 자동차번호를 찍어 갔 는데, 이 일로 문제가 생기지 않고 모두 안전하게 사역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서 늘 사랑의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 동역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역자님들 한 분, 한 분의 믿음과 기도와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넘치시기를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롬♡

<기도제목>

- 1)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안정을 되찾고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 2) 식료품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 3) 도시락 사역과 치료 사역을 통하여 노숙인들과 어려운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건강해지며, 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 4) 방과후 학교가 다시 재개되어 아이들이 전인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되도록
- 5) 온라인 한국어수업을 통해 학생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며 제자로 양육할 수 있도록
- 6) 사역 가운데 코로나로부터 건강하고, 신분보안을 위해서
- 7) 가족 모두 비자가 연장될 수 있도록

- 인도 한○○ 손○○ 선교사

살롬~! ^^

저는 지난 달까지 여수에서 영어 훈련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었습니다. 약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고, 아직은 부족하지만 영어로 소통할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9월 7일(화) 한국에서 출국하고 9월 8일(수) 몰도바에 도착해서, 사역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몰도바 소식)

몰도바는 어제 확진자 159명, 사망자 4명이 추가되어, 현재 코로나 확진자 260,183명, 사망자 6,270명 입니다. 몰도바에 백신이 보급되고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확진자와 사망자의 숫자가 줄어들었다가, 최근에 델타 변이로 인한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 백신을 맞은 상황이라 한국보다 안정적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반강제적인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의 집단 면역도 되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몰도바는 코로나 레드존 국가를 선정하고 이 나라들에서 체류한 경험이 있는 외국인은 몰도바 입국 후 14일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 레드존 국가에 해당하지 않아서,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나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지참 후 자가 격리 2주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제목>

- 1. 주님의 인도하심따라 순종하며 걷는 제가 될 수 있도록~
- 2. 언어(영어, 루마니아어)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잘 배우고 익혀 사용할 수 있도록~
- 3. 주님이 예비해주신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 4. 부족한 재정이 채워질 수 있도록~ (새로운 후원자들의 정기 후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6. 몰도바에서 좋은 동역자, 사역자들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 몰도바 정석영선교사

나의 걸음을 아시고, 나의 부족을 아시는 주님의 선한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편121:1-2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에게서로다.

테러로 인해 예루살렘 근교에 수 천 에이커에 걸쳐서 대형 산불이 나서 아름다운 산을 태워버렸고 사람들이 대피했습니다. 이와 같은 테러가 수백 번 일어나지만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불 타고 있으며, 저의 마음도 타고 있어요 이 글은 예루살렘 시내에서 만났던 실로에 사는 루티로 부터 받은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은 코로나 확진자가 5-6 천명 이되어 길거리에서도 마스크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8/15 오후 4시경 예루살렘의 하늘에 태양이 레드문 처럼 아주 빨갭게 빛을 발하고 온 하늘이 처음 보는 짙은 구름떼로 가득했었습니다.